

가족사연대기소설과 ‘원시’의 시공간의 탄생, 그리고 김사량의 『낙조』

1. 들어가며

근대는 ‘자연 대 문화’와 ‘전통 대 근대성’이라고 하는 이중의 등식을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일직선적 진보로 상상한다. 그 결과 ‘전근대’와 ‘근대’라고 하는 뚜렷한 분절이 생겨나며, ‘자연과 전통’으로서의 ‘고향’은 ‘원시’적 시공간이라는 미개와 야만의 영역 혹은 ‘탈역사화된’ 영역으로 밀려나게 된다. 본 연구는 1940년대 전후로 발표되었던 가족사연대기소설이 그러한 ‘전근대’와 ‘근대’의 단절을 표상하기 시작하는 일련의 작업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개화기 조선’을 근대의 시원으로 설정하면서 ‘그 이전의 조선’을 근대에 미치지 못하는 전(前)근대의 시공간으로 뚜렷하게 분절하고, ‘그 이후의 조선’을 근대화로 나아가는 문명의 과정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표상이 조선이 일본제국의 지방으로 편입되어 일본제국의 전쟁-주체로 포섭되는 과정과 함께 추진되었던 ‘근대국가체제’의 형성과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김남천의 풍속론과 가족사연대기소설

가족사연대기소설은 김남천의 ‘로만개조론’을 비롯하여 당시 문학평론가들의 새로운 장편소설의 창작에 대한 요구에 따라 발표되었던 일련의 소설들이다. 김남천을 시작으로 카프의 중견작가들인 이기영과 한설야, 그리고 당시 동경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던 김사량 및 『문장』의 편집자인 이태준까지 당시의 쟁쟁한 작가들이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잇따라 개화기를 배경으로 삼아 한 소년의 성장기를 다룬 장편소설들을 발표하였다.

김남천, 최재서 등 당시의 문학가들이 새로운 장편소설을 요청했던 것은 당시 서구의 근대 및 근대성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구 ‘시민사회의 서사시’라 할 수 있는 ‘로만’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새로운 소설 형식으로서 가족사연대기소설을 제안하였다. 가족사연대기소설은 ‘조선적 특수성’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서구의 근대성이 초래한 ‘주체의 분열’을 초극할 수 있는 구체적 문학 형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김남천의 논리는 당시 일본제국이 제시하였던 전쟁-프로파간다인 근대초극론과 대단히 닮아 있다. 특히 근대초극론 자체의 모순이라 할 수 있는, 근대를 초극한다는 명분과 반대로 고도화된 근대국가체제를 지향·건설하고자 하는 강력한 근대화 담론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김남천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듯이 김남천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로만’이라는 것은 시민계급이 아직 스스로 붕괴되기 전의 로만, 즉 발자크 및 루카치를 전범(典範)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서사시이기 때문이다. 그는 ‘로만개조’를 주장하면

서도 그 개조의 방향성은 ‘로만’이라는 서구의 문학 형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남천이 ‘풍속’을 통해 사회기구의 본질 및 당대 계급 갈등의 구조를 소설로 형상화하겠다고 하였던 의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풍속’을 ‘모탈’에까지 높여서 생각해보자던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그가 기왕 비판하였던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을 두루두루 살피는 일반 공통된 징후나 현상’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실패는 전근대사회를 가벼운 ‘표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간단히 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데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3. ‘원시’의 시공간의 탄생과 ‘반도인’

그렇다면 가족사연대기소설이 결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소년들의 맹목적인 근대화 지향과 마지막 결론의 비약적인 ‘도약’은 전근대-근대라고 하는 시간의 분절을 자명한 진보의 틀로서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개화기 조선을 근대의 ‘시원’으로 설정하면서 ‘그 이전의 조선’을 근대에 미치지 못하는 전(前)근대의 시공간으로, ‘그 이후의 조선’을 근대화로 나아가는 문명의 과정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이로써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으로 존재하던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혼종성 및 착종성이 일직선적 시간의 진보로 확립되면서 조선의 근대화가 역사화(진리화)되는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지만 그 역사적 기원은 망각된다. 가족사연대기소설의 문제성은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전근대가 근대로 이행하는 그 기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것이 문학가들의 이론적 주장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조선과 조선인, 즉 ‘반도인’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시행과 함께 조선이 일본제국의 ‘지방’으로 편입되어 ‘군사력’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면서 조선은 본격적인 ‘근대국가체제’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근대국민의 한 부분으로서 새로운 정체성 형성 및 역사수립이라는 과제도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조선’을 ‘황민화된 반도’와 단절된 과거의 시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조선’을 ‘자연과 전통’이라는 ‘원시’의 시공간으로 밀어 넣고, 소위 신체제로 거듭난 ‘반도와 반도인’을 ‘문화와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시공간으로 분절하는 일은 조선인을 황민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전제 조건이었다. 즉 조선에서 근대의 일직선적 진보의 시공간이 본격적으로 상상된 것은, 조선이 일본제국의 군사력에 포함되어야 했던 상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분절에서 조선의 전통은 비문명적 기질로 규탄의 대상이자 반성의 대상으로 호명되었고, ‘반도인’은 그러한 비문명적 전통을 근절하고 앞으로 동아협동체, 나아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보편적 세계로 ‘도약’하여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가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틀은 가족사연대기소설의 구조와 닮아 있다. 이로 인해 가족사연대기소설은 사회주의적 역사발전론의 내재적 논리를 따라 창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당시 근대화=황민화의 이데올로기의 자장(磁場)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문학자들의 내부 논의에 주로 집중한 결과, 가족사연대기소설이 당시 조선-일본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화된 방식에 대해서는 논

의가 확장되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성장하지 않는 소년, 김사량의 『낙조(落照)』

가족사연대기소설들은 그 구조적 틀에 있어서 ‘근대로의 도약’이라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김사량의 『낙조』는 그러한 도약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외성은 『낙조』의 전근대적 아버지의 세계가 무거운 위압감과 현실적 힘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비롯한다. 주인공 소년 수일이는 아버지의 세계에 짓눌려 새로운 근대적 세계로 ‘도약’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작품들이 전근대적 아버지의 세계를 ‘풍속’으로 그려내면서 중국에는 그 풍속을 ‘오백 년 자던 잠을 깨지 못하고 지내 자다가 죽을 것들’로 손쉽게 단절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런 점에서 김사량의 『낙조』는 가족사연대기소설이라는 형식을 전유하여 오히려 근대로 도약하지 않으려는 ‘전통이라는 것’의 존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대화를 자명한 필연성으로 확립하지 않고 여전히 그 존재성을 지닌 전통의 세계를 주장한다. 이는 한편으로 시대착오적인 감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근대에 대한 부정과 타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 감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